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민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여론조사

이원택, 지지율 수직상승 '돌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4.1%로 '지지율 33%' 김관영 지사 한자리 수 맹렬 추격

1차 경선 투표서 과반수 확보 못할 경우 1~2위 놓고 결선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도내 방송과 언론사들의 민주당 도지사 경선 여론조사 결과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 사이 선두를 달리는 김관영 지사를 이원택 의원이 수직상승하는 지지율을 보이면서 불꽃튀는 열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아직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경선 물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앞으로 경선까지 4개월여를 앞두고 있어 김관영 지사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정현을 익산시장간에 단일화를 비롯,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도내 방송과 신문 및 민영통신을 비롯한 언론사 여론조사를 분석한 결과 선두인 김관영 지사의 경우 31%, 33%, 27%, 34%, 33% 지지율을 기록 다수 득표할수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지사 직무만족도에서 53%정도 지지율을 기록한 반면 재선을 묻는 도민들의 반응은 도지사 교체율 53% 넘을 정도로 요구하는 기현상마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간 여론추이

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나 선두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제21~22대 재선 의원인 이원택 의원은 출마 선언 전인 지난 8월 뉴스에서 12.3%를 기록한 반면 지난 연말 전북도민일보와 민영통신 뉴스에서 도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24.1% 기록, 95.9%의 수직상승률을 보여 앞으로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선 의원인 안호영 의원은 처음 18%에서부터 시작해 16%, 11% 13%를 기록,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초반 여론조사부터 10%대를 진입하지 못한채 한자리 수를 기록해 열세로 평가받고 있다.

이렇듯 민주당 경선 물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1차 경선 투표가 추진될 전망이다.

여기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김관영 도지사



이원택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정현을 익산시장

다면 1위와 2위를 놓고 결선 투표를 실시해 승리한 쪽이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된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전주살내체육관에서 실시된 당시 민주당 도지사 경선에서는 최락도 3선 의원, 유종근 교수, 강근호 전 국회의원, 최철권 후보들이 출마해 1차 투표결과 최 후보가 1위, 유 후보가 2위, 강근호 후보가 3위를 차지했으나 과반수를 차지하는 후보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1위와 2위가 결선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1차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유종근 후보가 당초 예상을 뒤엎고 대 이변을 연출 3선관록의 최락도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해 그해 실시된 제1기 민선시대 초대 도지사의 영광을 안았다.

도내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치는

움직이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15%정도 차이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날아가는 현상을 한 두 번 본 것이 아니다"며 "이렇듯 강력한 정책방향과 빈틈없는 공약을 내세워 새로운 전북 미래 건설을 위한 슬로건으로 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선거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 현모씨(58,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는 "향후 도정 4년은 탄소와 재생에너지 시대를 맞아 인구소멸을 막고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짓는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각 후보들의 참신성과 능력, 도덕성 여부를 잘 가려내 무조건 지명도만 높이고 해서 투표를 해서 절대 안되며 전북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희성기자

임실 관촌 신흥사 목조석가여래 삼존·대좌, 전북 유형유산 된다

조선 후기 불상으로서 역사·학술적 가치 높아

이달까지 도 고시 통해 지정 예고 거쳐 최종 지정

임실군 관촌면 소재 신흥사(주지 진벽) 대웅전에 봉안된 '목조석가여래삼존·대좌(사인)'가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5일 밝혔다.

1652년 신흥사 대웅전 건립 당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여래 형식의 보존불과 좌우협시보살로서 미려불상과 제화갈라보살 등 삼존 상으로 구성됐다.

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아 분명한 조성 시기와 발원자는 알 수 없으나, 1738년 무경집(無境集), 1730년 운수지(雲水誌)를 통해서 신흥사가 1619년에 조성된 이래 1652년에 대웅전과 여러 목조 문화유산이 조성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보존불 좌대의 목서(墨書)를 통해 1743년 개금(改金) 사실, 불사에 참여한 발원자, 제작자, 시주자, 화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743년 당시 개제(改製) 및 개금(改金)에 참여한 태원(太元), 명조(明照), 상정(尙淨), 각심(覺心) 등 조각승들은 18세기 불교 조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다.

불상의 장방형 상호, 법의 착의 법, 옷 주름의 표현 기법 등이 17세기 전반기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며, 당시 이 지역에서 활



약했던 조각승 청허, 현욱, 현진 수연 등이 제작한 불상과 친연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의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조선 후기 불상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임실 신흥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 및 대좌는 2025년 12월 26일부터 약 30일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를 통해서 지정 예고를 거쳐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문화체육과 문화유산팀(063-640-3074), 신흥사(063-643-2178)로 하면 된다.

군은 이번 지정에 힘입어 2026년 신흥사 목조문화유산 학술 연구용역을 통해서 대웅전 내 석조지장보살상, 6나한과 목조석가상, 금강역사상 2기, 탕화 등에 대하여 추가 학술 연구와 임실의 불교문화를 새롭게 찾아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베이징 조어대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 사전 간담회에서 허리평 경제담당 부총리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시스 제공)

“새해, 도전·성과 도민의 삶으로 완성”

김관영 도지사, 2026년 도정 운영방향 발표

핵심 목표는 '체감 가능한 변화'... 복지·안전망 강화

고령사회 대응·투자유치 20조원 시대 개막 등 제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오전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은 지난 3년간의 도전과 성과를 도민의 삶 속에서 결실로 완성하는 해가 돼야 한다"며 새해 도정 운영 방향과 핵심 정책 상을 밝혔다. (관련사진 3면)

김 지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는 국정 혼란 속에서도 위대한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시간이었다"며 "시름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 정신은 다시 살아났고, 국민 주권 시대라는 새로운 출발의 힘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생을 최우선에 둔 경제 정책과 AI 3대 강국을 향한 국가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 대도약이 시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북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전북 대전환과 대

도약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도전해 왔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개최 혼란, 새만금 예산 삭감 등 위기를 언급하며 "의심과 우려의 시간도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며 더 단단해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 성과로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 성공 개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선정 △17조4,000억 원 규모 투자유치 △1조 원 규모 혁신 벤처펀드 조성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지구·기회 발전 특구 지정 △피지컬 AI 실증 거점 선정 등을 제시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대광법 통과,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 834억원의 국가 예산 확보 성과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이제는 성과를 만드는 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으로 완성해야 할 때"라며 2026년 도정의 핵심 목표를 '체감 가능한 변화'로 설정했다. /이민호 기자

우선 도민을 지키는 복지·안전망 강화를 약속했다. 권역별 통합재활병원 준공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필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는 '전북형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사회에 대응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첨단 재난 관리 체계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제 분야에서는 "전북도정의 시작도, 현재도, 미래도 경제가 최우선"이라며 투자 유치 2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벤처펀드 1조 원을 기반으로 한 유니콘 기업 육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을 위한 상생 경제 구축을 약속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천년 고도 전주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도록 범정부적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 인프라 확충과 문화 콘텐츠 인재 양성, 생태·치유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 확대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면에 계속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침

행정안전부 완주군

완주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지 등에 활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 *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외 모든 지자체 기부 가능

기부하신 분에게는 세액공제와 담례를 드립니다.

기부한도액 인당 연간 500만 원

세액공제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담례금은 기부액 30% 범위 내로 최고 150 만원까지

기부 방법 (2023.1.1~)
 온라인 고향사랑e음 (https://www.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NH농협은행 기부금 대면접수창구
 기부 지역특산물 구입

“ 고향에 기부하면 혜택을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제 더 큰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세액공제, 담례금 제공 지역특산물 공급

kakao 채널 완주고향사랑 완주고향사랑 채널을 추가하시면 관련 소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완주군 고향사랑팀 063-290-2391 ~ 2392